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본격화

시, 서민주거 안정 위해 공공자산·민간 역량 모아 주택 건설·리모델링 시범 공모 추진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을 본격화한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함께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해 장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공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자산과 민간의 역량을 합친 민관협력 사업의

핵심으로, 시에서 토지(건물)매입비 5억원(감정평가기준) 이내의 토지(건물)를 매입해 제공하면 사업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장기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운영하게 된다.

시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시세의 80%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세입자의 집값격정과 이사에 대한 고민 등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전주도시혁신센터 1층 교육실에서 사

업자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진행 절차 등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는 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사회주택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추진 개요, 추진 절차, 진행 일정 등에 대한 설명, 향후 사회주택으로 활용될 동완산동 시 소유 주택에 대한 소개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 시는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사업자 공모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전주형 사회주택이 공급되면 입주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해져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채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세 80%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사걱정, 임대료부담,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살기 좋은 사회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전주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긴급 시설 점검과 운영 검토를 위한 현장활동에 나섰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어린이 교통공원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전주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긴급 시설 점검과 운영 검토를 위한 현장활동에 나섰다.

이날 교통공원 현장활동은 지난 2007년 설치된 전주 어린이교통공원이 시설 노후화로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의원들이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공원 내의 교통안전교육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 뒤, 전주시의 유일한 현장체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개보수가 미진하여 시민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비예산 확보 등을 통한 조속한 시설 개선과 운영업무의 독립

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촉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들이 질병 예방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교통안전의 경우 연간 10시간을 의무화 하고 있어,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용한 현장실습의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은 "안전교육의 조기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교통사고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안전교육인 만큼, 철저한 시설관리와 실내교육장 설치 등 교통안전교육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자해 시도한 아들 죽이려한 비정한 '父心'

완산경찰, 50대 남성 구속

자해를 시도해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살해하려한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아들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유모(51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에 전주 중화산동의 병원을 응급실에서 자해를 시도해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 A씨(25)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작 생활고를 이유로 죽을 생각을 하는 아들이라 내 손에 죽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김민근 기자

여성일자리 '창출' 한복산업 '육성'

전주시-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 여성 전문인력 양성 '한스타일 전문가' 과정 개강

전주시에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한복 전문가로 양성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주만의 한복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시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일 센터 강의실에서 한복제작과 한복디자인 개발 등 전통문화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취·창업자와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교육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력단절여성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인 '한(韓)스타일 한복전문가' 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한복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복진흥정책에 따라 갈수록 수요증가가 예측되는 한복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 전주만의 한복산업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담겨있다.

정부(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한(韓)스타일 한복전문가 직업교육훈련은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총 236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시는 참여한 교육생들이 모든 교육 과정을 수료 후 한복전문가로 손색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한복제작 과정은 물론 전통한복, 신한복 디자인 제작



전주시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일 센터 강의실에서 경력단절여성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인 '한(韓)스타일 한복전문가' 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실기, 한복디자인의 실제, 취·창업 및 협동조합 준비교육, 현장견학, 현장업체 실습, 전시회 등의 다채로운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교육생들이 전통과 현대 감각을 겸비한 한복디자인을 익힐 수 있도록 전담강사와 특별강사를 초빙해 교육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시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향후 교육 수요생들에 대해서는 취·창업과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해 한복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한복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창업 및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한복산업을 키워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경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경력단절여성의 잠재적 능력 개발을 돕고 한(韓)스타일 한복전문가

로 양성해 전주시 한복문화산업 기반 구축 및 한복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차별화된 지역한복 산업을 육성해 여성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 무대로 18차례 절도 벌여

전주를 무대로 18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거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 중화산동의 한 주점에서 주인 윤모(45,여)씨의 금품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18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추가 범의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완산구, 혹서기 대비 '무더위 쉼터' 방문

전주시 완산구 백순기 구청장은 19일 관내 평화1동에 소재한 평화주공2단지 경로당, 학산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무더위 쉼터 운영과 폭염 대책 현황을 점검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무더위 쉼터는 매년 5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고 냉방기가 갖추어진 장소를 지정해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등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완산구에는 227개소가 운영 중이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을 설명하며,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하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름철 건강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구정전반에 대해 홍보하고 경로당 시설을 살펴보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백순기 완산구청장은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경찰 순찰 자전거' 폐기중

'녹색 차안' 실험을 위해 배치했던 순찰용 자전거가 결국 폐기되고 있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도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치된 순찰용 자전거는 172대다. 이 중 45대를 폐기해 현재 127대가 남아있다.

경찰은 김씨가 추가 범의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도입됐다. 한국무역협회와 석유공사의 지원으로 마련한 자전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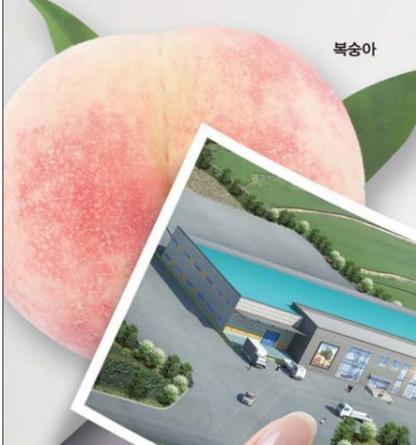
하지만 그동안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적을 받아왔다. 기동성이 떨어지고 야간 이용 시 위험해 사실상 방치됐기 때문이다. 자전거 순찰을 통한 단속 실적도 전무하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자전거 폐기에 들어갔다. /김민근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장미



호박



미나리



배



조합장 임인규

성원이사 (사옹)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용,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 Good 농산물